

글로벌 스타기업 미국 수출 가시화

전주시, 성과간담회... 캠프스텍·피치케이블에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이엔코리아·티엠시 후속지원

전주시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키우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2017년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사업에 선정된 (주)캠프스텍, (주)피치케이블 등 2개 기업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잠재고객을 확보해 수출계약을 앞두는 등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카이스트 전북지역혁신센터, 텍사스 주립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사업역량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3차년도 사업이 완료됐다.

특히, 이번 3차년도 사업에서는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2개 업체에 대한 약 9개월간의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지원은 물론, 지난 2015년~2016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성과우수기업의 성과확산을 위해 (주)이엔코리아와 (주)티엠시 등 2개 업체에 대한 후속지원도 이뤄졌다.

사업 주관·후원기관과 참여기업들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진행된 3차년도 성과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 경과와 성과물, 해외시장 개척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초미립자 분무기 아토머 I, II를 생산하는 (주)캠프스텍의 경우, 해외 현지 마케팅을 위해 미국 현지 51개사의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스페에 맞는 모터부품을 해결하고 제품개발과 제품 테스트도 완료한 상태다. 향후, 개발계약이 체결될 경우 북미 그린하우스시장 진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업체는 또 북미 최대 규모의 농업엑스포인 '2018 World Ag Expo' 참가관을 통해 브라질에 분사를 둔 대형 스프레이 제조업체 Jacto와의 초미립자 분무기에 대한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했다. 현재 브라질 현지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북미시장을 포함한 남미시장까지 진출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OEM생산 또는 라이선싱 계약이 기대된다.

참여기업 중 탄소섬유를 이용한 탄소발열방식을 제조하는 (주)피치케이블의 경우, 텍사스 백화점과 고급아울렛, 고급 잡화매장 등의 진출을 위해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미국에 15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연간 5000억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는 고급 잡화매장인 Brookstone에 제품등록을 완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활발한 판매가 기대된다. 또한 유통업체 JustBrand는 탄소발열방식 외 스노우멜팅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계약을 통한 현지시장 진입을 목표로 현재 MOU체결을 논의 중이다.

후속기업으로 선정된 2개 업체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속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히 놓았다.

탄소를 응용한 마스크팩을 제조 생산하는 (주)이엔코리아는 미국의 100대 기업인 Forever21과 연결돼 5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쳐 Forever21이 론칭한 뷰티 전문 오프라인 매장인 'Riley Rose' 진출에 성공, 현재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 일리노이 주 외 7개의 주에 위치한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탄소마스크팩이 판매되고 있다.

콘크리트 펌프트럭 슬러리 이송관 파이프를 제조하는 (주)티엠시도 기존 거래선과의 성과확산을 위해 세밀한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세계 콘크리트 펌프트럭 파이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세계 1·2위를 달리는 다국적 기업 푸츠마이스터(Putzmeister)와 슈빙(SCHWING)의 높은 장벽을 통과하기 위한 여러 카테고리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필드테스트가 마무리되면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 최대 규모의 건설박람회인 World of Concrete를 통해 CTR Concrete Pumping과 거래를 성사시켜 향후 기업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일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해외시장 진출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작년부터 후속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주채반

전주시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키우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2017년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사업에 선정된 (주)캠프스텍, (주)피치케이블 등 2개 기업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잠재고객을 확보해 수출계약을 앞두는 등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카이스트 전북지역혁신센터, 텍사스 주립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사업역량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3차년도 사업이 완료됐다.

특히, 이번 3차년도 사업에서는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2개 업체에 대한 약 9개월간의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지원은 물론, 지난 2015년~2016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성과우수기업의 성과확산을 위해 (주)이엔코리아와 (주)티엠시 등 2개 업체에 대한 후속지원도 이뤄졌다.

사업 주관·후원기관과 참여기업들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진행된 3차년도 성과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 경과와 성과물, 해외시장 개척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초미립자 분무기 아토머 I, II를 생산하는 (주)캠프스텍의 경우, 해외 현지 마케팅을 위해 미국 현지 51개사의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스페에 맞는 모터부품을 해결하고 제품개발과 제품 테스트도 완료한 상태다. 향후, 개발계약이 체결될 경우 북미 그린하우스시장 진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업체는 또 북미 최대 규모의 농업엑스포인 '2018 World Ag Expo' 참가관을 통해 브라질에 분사를 둔 대형 스프레이 제조업체 Jacto와의 초미립자 분무기에 대한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했다. 현재 브라질 현지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북미시장을 포함한 남미시장까지 진출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OEM생산 또는 라이선싱 계약이 기대된다.

참여기업 중 탄소섬유를 이용한 탄소발열방식을 제조하는 (주)피치케이블의 경우, 텍사스 백화점과 고급아울렛, 고급 잡화매장 등의 진출을 위해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미국에 15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연간 5000억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는 고급 잡화매장인 Brookstone에 제품등록을 완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활발한 판매가 기대된다. 또한 유통업체 JustBrand는 탄소발열방식 외 스노우멜팅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계약을 통한 현지시장 진입을 목표로 현재 MOU체결을 논의 중이다.

후속기업으로 선정된 2개 업체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속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히 놓았다.

탄소를 응용한 마스크팩을 제조 생산하는 (주)이엔코리아는 미국의 100대 기업인 Forever21과 연결돼 5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쳐 Forever21이 론칭한 뷰티 전문 오프라인 매장인 'Riley Rose' 진출에 성공, 현재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 일리노이 주 외 7개의 주에 위치한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탄소마스크팩이 판매되고 있다.

콘크리트 펌프트럭 슬러리 이송관 파이프를 제조하는 (주)티엠시도 기존 거래선과의 성과확산을 위해 세밀한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세계 콘크리트 펌프트럭 파이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세계 1·2위를 달리는 다국적 기업 푸츠마이스터(Putzmeister)와 슈빙(SCHWING)의 높은 장벽을 통과하기 위한 여러 카테고리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필드테스트가 마무리되면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 최대 규모의 건설박람회인 World of Concrete를 통해 CTR Concrete Pumping과 거래를 성사시켜 향후 기업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일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해외시장 진출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작년부터 후속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주채반

전주시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키우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2017년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사업에 선정된 (주)캠프스텍, (주)피치케이블 등 2개 기업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잠재고객을 확보해 수출계약을 앞두는 등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카이스트 전북지역혁신센터, 텍사스 주립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사업역량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3차년도 사업이 완료됐다.

특히, 이번 3차년도 사업에서는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2개 업체에 대한 약 9개월간의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지원은 물론, 지난 2015년~2016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성과우수기업의 성과확산을 위해 (주)이엔코리아와 (주)티엠시 등 2개 업체에 대한 후속지원도 이뤄졌다.

사업 주관·후원기관과 참여기업들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진행된 3차년도 성과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 경과와 성과물, 해외시장 개척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초미립자 분무기 아토머 I, II를 생산하는 (주)캠프스텍의 경우, 해외 현지 마케팅을 위해 미국 현지 51개사의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스페에 맞는 모터부품을 해결하고 제품개발과 제품 테스트도 완료한 상태다. 향후, 개발계약이 체결될 경우 북미 그린하우스시장 진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업체는 또 북미 최대 규모의 농업엑스포인 '2018 World Ag Expo' 참가관을 통해 브라질에 분사를 둔 대형 스프레이 제조업체 Jacto와의 초미립자 분무기에 대한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했다. 현재 브라질 현지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북미시장을 포함한 남미시장까지 진출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OEM생산 또는 라이선싱 계약이 기대된다.

참여기업 중 탄소섬유를 이용한 탄소발열방식을 제조하는 (주)피치케이블의 경우, 텍사스 백화점과 고급아울렛, 고급 잡화매장 등의 진출을 위해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미국에 15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연간 5000억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는 고급 잡화매장인 Brookstone에 제품등록을 완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활발한 판매가 기대된다. 또한 유통업체 JustBrand는 탄소발열방식 외 스노우멜팅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계약을 통한 현지시장 진입을 목표로 현재 MOU체결을 논의 중이다.

후속기업으로 선정된 2개 업체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속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히 놓았다.

탄소를 응용한 마스크팩을 제조 생산하는 (주)이엔코리아는 미국의 100대 기업인 Forever21과 연결돼 5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쳐 Forever21이 론칭한 뷰티 전문 오프라인 매장인 'Riley Rose' 진출에 성공, 현재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 일리노이 주 외 7개의 주에 위치한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탄소마스크팩이 판매되고 있다.

콘크리트 펌프트럭 슬러리 이송관 파이프를 제조하는 (주)티엠시도 기존 거래선과의 성과확산을 위해 세밀한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세계 콘크리트 펌프트럭 파이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세계 1·2위를 달리는 다국적 기업 푸츠마이스터(Putzmeister)와 슈빙(SCHWING)의 높은 장벽을 통과하기 위한 여러 카테고리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필드테스트가 마무리되면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 최대 규모의 건설박람회인 World of Concrete를 통해 CTR Concrete Pumping과 거래를 성사시켜 향후 기업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일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해외시장 진출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작년부터 후속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주채반

전주시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키우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2017년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사업에 선정된 (주)캠프스텍, (주)피치케이블 등 2개 기업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잠재고객을 확보해 수출계약을 앞두는 등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카이스트 전북지역혁신센터, 텍사스 주립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사업역량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3차년도 사업이 완료됐다.

특히, 이번 3차년도 사업에서는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2개 업체에 대한 약 9개월간의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지원은 물론, 지난 2015년~2016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성과우수기업의 성과확산을 위해 (주)이엔코리아와 (주)티엠시 등 2개 업체에 대한 후속지원도 이뤄졌다.

사업 주관·후원기관과 참여기업들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진행된 3차년도 성과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 경과와 성과물, 해외시장 개척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초미립자 분무기 아토머 I, II를 생산하는 (주)캠프스텍의 경우, 해외 현지 마케팅을 위해 미국 현지 51개사의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스페에 맞는 모터부품을 해결하고 제품개발과 제품 테스트도 완료한 상태다. 향후, 개발계약이 체결될 경우 북미 그린하우스시장 진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업체는 또 북미 최대 규모의 농업엑스포인 '2018 World Ag Expo' 참가관을 통해 브라질에 분사를 둔 대형 스프레이 제조업체 Jacto와의 초미립자 분무기에 대한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했다. 현재 브라질 현지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북미시장을 포함한 남미시장까지 진출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OEM생산 또는 라이선싱 계약이 기대된다.

참여기업 중 탄소섬유를 이용한 탄소발열방식을 제조하는 (주)피치케이블의 경우, 텍사스 백화점과 고급아울렛, 고급 잡화매장 등의 진출을 위해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미국에 15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연간 5000억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는 고급 잡화매장인 Brookstone에 제품등록을 완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활발한 판매가 기대된다. 또한 유통업체 JustBrand는 탄소발열방식 외 스노우멜팅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계약을 통한 현지시장 진입을 목표로 현재 MOU체결을 논의 중이다.

후속기업으로 선정된 2개 업체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속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히 놓았다.

탄소를 응용한 마스크팩을 제조 생산하는 (주)이엔코리아는 미국의 100대 기업인 Forever21과 연결돼 5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쳐 Forever21이 론칭한 뷰티 전문 오프라인 매장인 'Riley Rose' 진출에 성공, 현재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 일리노이 주 외 7개의 주에 위치한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탄소마스크팩이 판매되고 있다.

콘크리트 펌프트럭 슬러리 이송관 파이프를 제조하는 (주)티엠시도 기존 거래선과의 성과확산을 위해 세밀한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세계 콘크리트 펌프트럭 파이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세계 1·2위를 달리는 다국적 기업 푸츠마이스터(Putzmeister)와 슈빙(SCHWING)의 높은 장벽을 통과하기 위한 여러 카테고리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필드테스트가 마무리되면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 최대 규모의 건설박람회인 World of Concrete를 통해 CTR Concrete Pumping과 거래를 성사시켜 향후 기업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일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해외시장 진출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작년부터 후속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주채반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담당자 워크숍 개최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담당자들이 19~20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워크숍을 갖는다. 이 워크숍은 학생인권 관련 정책을 토의하고,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다.

19일에는 염규홍 전북교육청 인권 옹호관이 '인권행정의 방향'에 대해 특강한 뒤,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말에 이어 학생인권 보호·증진을 주제로 3시간 30분 동안 영역별 토의를 한다.

20일에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고희석 조사구제팀장의 '사례로 보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강의와 각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정책 방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뒤 폐회한다. /이상민 기자

전주대-한국생산성본부 4차산업 인재양성 협약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한국생산성본부와 18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산학연계와 새로운 교육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 LINC+ 사업단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노규성 회장과 4차 산업혁명추진단의 최상록 단장, 호남지역본부 이진환 본부장 등 한국생산성본부의 4차 산업혁명 및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주대와 한국생산성본부의 양측에서는 △ IoT 기술 기반의 한국형 스마트트러빙(지역 전문 기반의 의, 식, 주) 생활공학 인재양성 △ 현장실습, 인턴십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 교류를 활성화 △ 산업체 재직자 교육 및 산학클러스터 강화에 적극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주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4차 산업분야의 산학협의회 구성하여 해당 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LINC+사업단 주승 단장은 "경쟁력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인재 양성에 상호 협력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서 4차 산업분야의 쌍방향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전주교육대학교와 지난 17일 오후 도교육청 5층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교육청-전주교대, 상호 협력 협약

전북도교육청이 전주교육대학교와 지난 17일 오후 도교육청 5층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우영 전주교대 총장은 이날 협약서에 서명하고, 전북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해 전북교육발전에 기여하자고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교육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수·학습 지원 및 사회봉사, 학술자료 및 기타 정보 교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의 개최와 참석, 실험실습기자재 및 연구기기와 시설물의 공동사용 등에 협력하게 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교대 학생들이 학교 혁신을 통한 공교육의 변화와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초등교육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전북교육을 한 걸음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영 전주교대 총장은 "두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전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전주교대 학생들이 전북교육정책을 공유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더 유능한 교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고 화답했다.

한편,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 실무책임자 등을 중심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사안별로 상호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상민 기자

정광운 교수, 유기 발광소재 개발

스마트 페인트 등 응용가능... 세계적 학술지 표지논문 게재



그간 외부 자극에 의해 다양하게 색깔이 변하는 신개념의 광학필름 개발에 큰 연구 성과를 거두었던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공대 고분자·나노공학과·사진)가 새로운 유기 발광 소재를 개발해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빛으로 다양한 색깔을 구현하고 원격으로 색 조절까지 가능한 광학필름과 필름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액추에이팅(actuating) 고분자 소재를 개발한 바 있는 정 교수는 이번엔 열로 물질 중 하나인 시아노스틸벤(cyanostilbene)을 기반으로 한 유기 초분자(supramolecule)를 새롭게 설계 및 합성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실용을 통해 시아노스틸벤에 열이나 기계적인 힘을 가해 신규 유기 초분자의 고차원 구조를 제어함으로써 단일 유기 초분자의 광학적인 성질을 정밀히 제어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된 유기 발광소재는 스마트 페인트나 스마트 센서 등 넓은 분야에 응용이 가능해 인간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메테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 = 12.124) 2018년 4월호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이상민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